것은 注目할만하다。 檐裏中央에는 矩形의 凹處가 마련되어 嵌入을 위한 裝置로 推定되었으며 圓棰가 平行으로 配列되었다。 또 中央의 矩形上에 圓孔이 두곳에 보임은 上記한 蓮花臺上의 同一한 裝置와 關聯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家屋形石造遺品은 또한 初有의 遺例인 바 家屋形佛龕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아서 稀貴한 作品일뿐 아니라 그 樣式系로서 日本 法隆寺에 現存하는 推定 百濟渡來의 玉蟲厨子와도 比較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以上의 三品中 佛石이 蓮花臺 및 屋蓋石과 서로 맞지 않으므로써 各異의 結構로 보이기는 하나 그 原形만은 大略 推定할 수 가 있다。 따라서 今後의 原地點에 對한 發掘調査가 期待되는 바이라 하겠으나 旣出品(例컨대 碑岩寺癸酉銘四面石像)이 이같은 上下의 莊嚴具를 喪失하고 있음에 比하여 多幸이라고 할 것이다。 特히 家屋形 天蓋는 同時에 우리나라의 古代建築史에서 注目되어야 할 遺品으로서 解放後 扶餘邑 佳塔里에서 出土된 金銅塔片과 더불어 三國末 新羅統初의 建築樣式 考察上 重要하다고 할 것이다。 (其一)에 比하여 樣式이나 彫法이 매우 類似하나 그보다는 다소 앞서는 造形으로 보고자한다。

註

① 拙稿「碑岩寺所藏의 新羅在銘石像」本誌一—四、一九六〇、一一、

秦弘燮「燕岐의 三尊千佛碑像」本誌 二—九、一九六一、九

② 拙稿「公州石造佛像의 調査」(「東國史學」第六輯)

③ 이같은 碑像遺例로서 背面에 半跏像을 主尊으로 새긴것으로는 日本 京大 文學部博物館所藏의 北齊武平三年造三尊石像(小川博士將來品)이 注目되는 바인데 同像의 寫眞과 銘拓을 惠送하여 준 同大學考古學敎室에 感謝하는바이다。

新羅土佛坐像

洪 思 俊

一九六一年 六月頃에 慶州 東部 南山 기슭 排盤里 玉蓮庵가는 부처돌배이(俗地名)에서 出土되었다는 土製座像이 某古物商에서 入手되었다。 作品은 當初精巧하게 만들었던 모양이나 風磨雨洗하여서 거치른 잔모래알이 前後面에 나타나고 있는 天蓋만은 細部의 片貌만이 남아 있다。 佛龕에 安置한 形態를 浮刻한 듯 上部及石側과 坐臺下에 돋으러진 輪廓이 若干남아 있다。 全體의 모양은 舟形에 가까웁고 세울 수 있는 연고동色 土製이다。 側面으로 보면 坐佛이 浮刻된、前面은 直角 後面은 위로가면서 漸次 얇아져갔다。 佛像은 蓮華臺座에 結伽趺座하였고 身光과 頭光을 細線으로 나타냈고 頭上에 寶蓋가 달려있다。 佛顔에 比해서 肉髻가 크다。 其他 衣文이나 兩手의 位置는 分明하지 못하다。 慶州 南山은 羅代佛敎道場을 髣髴케하던 곳으로 佛蹟을 許多히 保有하고 있음에도 이 土製坐佛도 羅代 그 어느 佛敎篤信者의 遺品이 않일까 생각된다。 總高 三·二寸



西郊餞儀

孟 仁 在

一

謙齋의 서울寫生圖 가운데 제일 흥미가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小幅이지만 原蹟의 크기나 所在는 알 수 없다。 四十餘年前 우리나라에 와 있던